

담양군, 일손 부족한 농가에 현장 지원

전 공직자 참여로 농번기 일손돕기 추진...관내 12개 읍·면
6월에는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연계...지속 가능한 농가 지원



담양군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군청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 직원

5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내 12개 읍·면의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농업유통과를 포함한 13개 부서 160여 명의 공직자가 딸기 모종 철거, 마늘 수

확, 제조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했다. 대전면의 마늘재배 농가는 “예전 농기계 사고로 손을 다친 뒤 혼자 농사짓기가 막막했는데, 공직자들이 제때 와서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군은 청년층 참여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오는 6월 5일에는 송원대학교 학생 100여 명이 봉산면 일원에서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으로, 군은 봉사활동과 실제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지나해에도 760여 명이 일손돕기에 참여해 농가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함께 나누는 현장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농촌인력센터를 통해 민간 인력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4년 2,138농가에 6,923명의 인력을 연계 지원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700여 명을 농가와 연결하여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을 줬다.

또한 광주 등 인근 도시 주민이 농촌에서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도시농부 농촌일손보태기’ 사업도 운영 중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김한중 전남 장성군수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상반기 군정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장성군, 하반기 군정 핵심방향...가시적 성과창출 집중

상반기 실적·하반기 계획 보고회 가져
주요 현안 375건 추진 성과·과제 점검

장성군이 민선 8기 하반기 군정 핵심 방향을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확정했다.

장성군은 지난 27~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상반기 군정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보고회에서 총 375건의 군정 주요 사업을 행정·관광·체육, 복지·농업, 건설·산업 3개 분야로 나누고 핵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행정·관광·체육분야에선 나노제2산단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우광로지스틱스서비스 150억원 투자협약, 양대 체전과 전남정원페스티벌 성공 개최, 장성군 캐릭터 ‘성장이와 장성이’ 개발·활용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하반기에는 ‘2025 장성 방문의 해’ 지속 운영,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개최 등 장성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농업분야는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돌봄센터 설치, 391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레몬 재배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정책 성과와 지속 가능한 농정 추진이 주목을 받았다.

건설·산업 분야는 국도24호선 개량·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황룡면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 삼서~광주 간 연결도로 개설 등이 성과로 평가 받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올해 상반기는 장성군 개척 이래 처음으로 전남제전·전남장애인체육회를 개최했고 황룡강 꽃길축제, 전남정원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성장장성’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군민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군민과 공직자가 상생하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장성=김수권 기자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조성

화순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PM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주차구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토록 했다. 또한, PM 공유업체와 협의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도

록 유도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신기교차로 인근 ▲화순군청 빗물정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화순우체국 ▲한양립스 아파트 ▲화순문화원 인근 ▲제일중학교 후문 ▲화순중학교 ▲부처샘공원 ▲서라4차 아파트 등 10개소로 총 1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다.

방상열 도시과장은 “PM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



고 있다”라며, “이번 전용 주차장 조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도 더욱 편리하게 PM을 이용할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에서 플로깅 행사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푸른곡성21 실천협의회 등 50여 명 참여

곡성군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섬진강 침실습지 일원에서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고 30일 전했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실천 운동이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실천하기 위해 열린 이번 플로깅 행사

에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곡성군, 영산강유역환경청, 푸른곡성21 실천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곡성천, 오곡천 그리고 섬진강이 만나는 침실습지 일원을 중심으로 하천에 방치된 플라스틱과 비닐 등 다양한 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수거된 재활용 플라스틱의 수집, 분류

등 과정을 촬영하고, 참여자들이 이를 SNS에 공유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행동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침실습지 플로깅은 단순한 정화활동을 넘어,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과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개인의 책임이 모여 변화된 시민의식은 결국 제도와 정책을 움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곡성=양혜영 기자

나주시,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종합컨설팅 추진

나주시가 대표 브랜드인 ‘천년이음 나주배’ 고품질 재배관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참여농가 30명을 대상으로 제1차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품질보증제 운영 내실화와 나주배 고유 브랜드인 ‘천년이음 나주배’의 품질 고도화 및 재배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

진했다.

참여 농가들은 전문가와 함께 고품질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컨설팅에는 강삼석 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장을 비롯해 최진호 농업인상담소장, 유재문 화상병예찰반장, 정승이 나주APC과장 등 재배 및 유통분야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널

포스코A&C